

‘광양관광 도약 원년’ 선포식 시민과 함께 연다

광양시, 市승격 30주년 맞아 오늘 마동체육공원에서 500여명 초청
해오름육교 준공 점등식 거행... 10월 중 문화·예술 이벤트 풍성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양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광양관광 도약 원년’ 선포식을 개최한다.
광양시는 1일 오후 6시 마동체육공원에서 광양 시민을 비롯해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및 관광 전문가 등 500여명을 초대해 광양관광의 비전을 그린다.
선포식은 광양시립합창단, 어린이, 지역

예술인들의 식전공연에 이어 광양관광 비전을 담은 영상 ‘광양관광 start now~!’ 상영으로 서막을 연다.
이날 선포식은 광양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주요 초청대상자의 축사 후 광양의 떠오르는 태양과 파도의 물결을 형상화한 해오름육교 경과보고와 작품 설명을 듣고 준공 공로패를 전달하는 흐릿한 시간이 마련됐다.
또 시민, 관광전문가의 희망메시지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통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광양관광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2019년을 광양관광 도약 원년으로 대내외에 선포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새로운 야간명소로 자리매김할 해오름육교 점등식이 거행된다.
점등식 후에는 해오름육교에 올라 삼화섬공원 정상까지 연결된 데크를 따라 걸으며 이순신대교와 무지개다리에 펼쳐진 빛의 색채와 광양해비치로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내년 상반기 미래 광양 야경을 미리 감상하는 시간도 이어진다.

이날 선포식과 함께 민선7기 광양관광 핵심 동력인 광양해비치로(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단절된 금호동과 중마동을 해상과 육상으로 연결하는 해오름육교 준공을 기념하고 포지셔닝하기 위한 퍼포먼스도 연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관광 도약 원년 선포식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을 문화와 예술, 각종 이벤트가 넘치는 ‘광양관광의 달’로 운영한다”며 “광양관광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정읍시, 하모교 등 8곳 스텝등 설치... 시민안전 도모

정읍시는 정읍천·하모교·상동교 등 8개소에 스텝등 설치를 완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스텝등 설치에 천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됐다. <사진>
정읍천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자연 거길,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다. 하지만 교량 하단이 어두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정읍IC 인근 하모교부터 정읍 육류관리소 인근 상동교까지 교량 7개소에 죽림포포공원 인근 도보교 1개소에 스텝등을 설치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평상시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인 정읍천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자주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읍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담양에 국내 유일 ‘개구리생태공원’ 개장 군, 100억 투입 개구리 관찰 온실생태관·사육실 등 갖춰

담양군에 국내 유일의 ‘개구리생태공원’이 문을 열었다. <사진>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읍에 들어선 개구리생태공원은 개구리를 관찰할 수 있는 온실생태관과 영상, 모형 등을 이용한 전시관, 사육실 등을 갖춘 1600㎡ 규모다.
건물 외부를 담양의 상징인 대나무 제품을형상화하고 내부 소재도 최대한 대나무 소재를 활용했다.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조성했다.

2014년 착공해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최근 완공됐다.
개구리생태공원 인근에 에코센터도 함께 개관한다.
사업비 24억원이 투입돼 기획·상설전시실, 교육실, 무인카페, 체험실, 어린이 도서관을 갖췄다.
두 시설 모두 입장료는 없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화순경찰 의경대원·화순군 꿈드림센터 청소년 ‘의무경찰멘토링’ 성과... 점정고시 25명 합격

화순경찰서 의경대원과 화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꿈드림센터) 청소년들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는 ‘의무경찰멘토링’ <사진>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의무경찰멘토링은 의경대원 1명이 중고생 5명을 맡아 영어·수학 등 부족한 공부를 지도해주고 장래희망에 대해 공감하는 학습도우미 프로젝트이다.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4·8월에 치러진 점정고시에 의무경찰멘토링에 참여한 꿈

드림센터 청소년 25명이 응시, 전원이 합격했다.
의무경찰멘토링에 참여해 온 오용화 대원은 “의무경찰멘토링이 점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형처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청소년들에게 모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고창 고구마 산업 탄력... 국비 27억 확보 가공시설 등 신축

고창지역 고구마 산업이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식량작물공동(들넉) 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7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고창군은 식량작물공동(들넉) 경영체육성사업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7억원(국비 27억원, 지방비 27억원, 자부담 13억원)을 투입해 고구마 가공시설(2562㎡) 및 저장시설(660㎡)을 신축하게 된다.

군은 고구마 가공시설 건립으로 지역 고구마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비선호품을 수매 가공해 연 7억5000만원의 추가소득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역 500여호의 소규모 고구마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현재 고창군에선 1185농가(1056ha)가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다. 고창 고구마는 미네랄이 많은 황토에서 재배돼 탁월한 당도와 맛을 자랑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익산시, 주얼리 산업 활성화 36억원 투입 임대공장 짓는다

익산시는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공장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주얼리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6억원을 투입, 임대공장 건립에 나선다.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에서 건립되는 임대공장은 대지면적 5379㎡를 2개 필지로 분할해 각각의 대지에 연면적 999㎡ 공장 1동씩 총 2동을 신축한다.
지난 30일 착공한 공사는 오는 2020년 2월 완료된다.

기업은 인력채용, 기계·장비 등 제조시설 설치 준비, 공장등록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가 4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중국 청도 소재 LK주얼리, 금정공예품과 임대공장 입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임대공장 건립을 위해 시는 지난 3월 설계용역에 착수해 실시설계, 경관위원회 자문, 원가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평면계획은 도금을 제외한 주물주조, 연마, 조립·가공, 검사·포장 및 출하까지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기업 의견을 반영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임대공장 건립사업은 국내 복귀 주얼리 기업이 초기 투자 절감 비용을 설비도입, 인력고용 등 운영에 투자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된다”며 “복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세열굴 “지역민 안전 책임지는 소방행정 총력”

구동욱 장성소방서장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는 소방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제2대 장성소방서장으로 취임한 구동욱 서장은 “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현장에 능하고 재난에 강한 프로소방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 서장은 또 “지역민의 안전과 복지에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는 소방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1999년 소방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구 서장은 보성·담양·영암소방서,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교 육훈련원을 거쳐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장비팀장 등을 역임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동부 센트레빌, 상가 사정상 급매 |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9억~~ → 7억원
- 임대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350만원

덕남동, 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권

- 덕남동 임야,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